

柳宗元 ‘古文’ 창작과 불교수용*

- <永州八記>를 중심으로 -

황정희**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유종원과 불교
 - III. <永州八記> 창작과 불교수용
 - 1. 경물관조와 경험의 서술
 - 2. 小景에 대한 주목과 ‘奇’, ‘特’심미발견
 - IV.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유종원의 <永州八記>는 산수유기문학으로서의 성취가 뛰어난 작품으로 그동안 다방면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그동안 유종원 고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성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로, 유종원은 동시대의 고문운동가인 韓愈에 비해 불교에 대한 긍정과 이해가 높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유종원의 고문창작 속에 나타나는 불교의 수용형태에 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永州八記>가 창작된 영주에서의 생활에서 유종원과 불교는 떼어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용흥사에서 기거와 승려와의 교분은 물론 <巽公院五咏>등의 시가창작에서는 유종원의 불교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여식을 출가시켜 비구니가 되게 하는 등도 모두가 영주시기의 일이다. 이렇듯 불교와 밀착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지어진 <永州八記>에 대한 연구 가운데는 당시 유종원이 심취해 있던 불교수용과 관련한

* 이 논문은 성신여자대학교 2008년도 교내학술연구지원비 지원에 의해 작성된 것임.

** 성신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논의를 진행하는 시도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본고는 이러한 호기심을 작품연구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로 작성되었으며, 불교에 대한 공부가 아직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몇 가지 관점을 적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永州八記〉라는 작품을 불교색채가 농후한 불교적 작품으로 인정한다든가 불교의 선양을 주제로 삼았다는 등의 주지를 도출하고자 하는 의도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유종원의 〈永州八記〉라는 명문장이 탄생하고 인구에 회자되는 현실은 그 작품이 지니는 예술적 감화력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감동적 정감 때문일 것이다. 종교색채에 의한 감화력과 정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고도의 예술성과 감동을 도출하는데 동원된 경물에 대한 작가의 예술적 처리과정에 보이는 불교수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할 따름이다.

II. 유종원과 불교

유종원은 자칭 ‘어려서부터 불교를 좋아했다 自幼好佛’고 밝힌 바 있으며, 장안생활기간에도 승려들과 교분을 나누며 왕래도 잦았다. 그가 일생동안 승려에게 써준 贈別序文은 12편이며, 불교사원과 죽은 승려를 위해 써준 비명은 12편이다. 사원의 건축과 관련해서 記序문장을 6편이나 썼으며, 승려와 주고받은 詩가 20수나 된다. 이들 직접 불교와 관련한 詩文의 수량은 50편에 달하며, 이는 전체 《柳河東集》의 작품 가운데 10분의 1에 달한다.¹⁾

유종원은 불교의 여러 종파 가운데 천태종과 선종 모두에 이해가 있었다. 유종원의 〈巽公院五咏〉은 佛理를 찬술한 연작시로, 유종원이 영주에 폄적된 뒤에 佛學에 침윤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王國安은 손공원(巽公院)을 용흥사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하면서, 重巽스님이 거쳐했던 ‘淨土院’이며, 淨土堂, 曲講堂, 禪堂, 芙蓉亭, 苦竹橋도 정토원에 있는 것들이라고 보았다. 〈巽公院五咏〉의 창작은 대략 元和2년(807년) 가을쯤이며, 이 때 유종원은 龍興寺에 기거한지 2년이 되었으며, 이 2년

1) 謝漢強著, 〈柳宗元與佛教〉, 《讀柳札記》(中國文史出版社, 2003), 11-24쪽 참조.

동안 重巽님의 영향 하에 불경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었다고 한다.²⁾

유종원은 「저는 어려서부터 불학을 좋아하여 그 도를 추구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논자 가운데 불가의 학설에 능통한 사람은 드문데 영릉에서 나는 홀로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吾自幼好佛, 求其道積三十年, 世之言者罕能通其說, 于零陵, 吾獨有得焉.)」³⁾ 라고 하여 증손승려에게 불학을 학습 하였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왕국안은 문장 가운데 소위 '得'의 구체내용은 마땅히 천태종교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며, 〈巽公院五咏〉의 연작시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⁴⁾

유종원이 일찍부터 접촉을 많이 한 종교로 선종이 있다. 더욱이 당시는 선종의 신조류인 洪州禪이 유행하던 시기였다. 유종원은 11세 때 부친 柳鎭을 따라 洪州에 머문 바 있으며, 장안시기에도 선종 승려들과 자못 왕래가 있었다고 한다. 관련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유종원이 어려서부터 선종 승과 왕래가 있었으며, 그 영향을 받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⁵⁾

여기서 좀 더 얘기해 둘 것은 천태종과 선종, 특히 천태종의 서방정토설 선양과 이에 대한 유종원의 믿음이다. 이와 관련해서 왕국안은 〈巽公院五咏〉에서 첫 번째 시로 '淨土堂'을 둔 것은 마땅히 유종원의 의식적인 안배이며 '西方淨土'설에 대한 믿음의 반영으로 보았다. 중당시기에는 정토설이 크게 유행하였고, 대다수 사대부들이 이를 수용한 것도 선종의 '서방정토는 마음에 있다. (淨土在心)'라는 관념 때문이었다고 한다. 유종원은 정말로 서방에 '극락세계'가 있다고 믿었던⁶⁾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창작에의 반영은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밖에도 유종원의 불교에 대한 믿음은 가족에 대한 일화에서도 나타난다. 영주에서 여식이 중병에 걸렸을 때, 「부처님 제가 귀의하노니 원컨대 제자로

2) 王國安著, 孫昌武·陳琮光主編, 〈讀〈巽公院五咏〉兼論柳宗元的佛教信仰〉, 《柳宗元研究文集》, (廣西人民出版社, 2005), 15쪽 참조.

3) 유종원지음, 오수형·이석형·홍승직 옮김, 〈送巽上人赴中丞叔父召序〉, 《유종원집2》, (소명출판, 2009), 393-395쪽 참조.

4) 王國安著, 〈讀〈巽公院五咏〉兼論柳宗元的佛教信仰〉, 상계서, 16쪽 참조.

5) 상동, 21-22쪽 참조.

6) 상동, 19쪽 참조.

삼아주십시오. (佛我依也, 愿以爲役)」라 하고, 여식의 이름을 개명하여 '佛婢'로 하였는가 하면, 병세가 중해지자 아예 삭발하여 비구니로 출가시키고 개명하여 '初心'이라 했다.⁷⁾

이상으로 영주시기 유종원의 생활과 창작활동 가운데 나타나는 불교적 신앙과 영향에 대해 소략 살펴보았다. 영주에서 佛學에 대한 깊은 연구와 영향을 보여주는 시가창작과 생활일화 등이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그의 〈永州八記〉창작에서도 불교수용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다음 장에서 논의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Ⅲ. 〈永州八記〉⁸⁾ 창작과 불교수용

〈永州八記〉는 유종원이 영주 지역의 자연경관을 유람하면서 지은 산수유기문이다. 여기서 작가와 경물 간에 형성되는, 작가는 경물을 어떻게 대하며 무엇을 느끼는지, 그 속에 어떠한 매개가 작용을 하여 작가의 그러한 구상과 생각과 느낌을 가져오는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 본고의 출발은 유종원이 불교라는 매개를 수용하여 경물에 대한 작가의 감수를 예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전제하였음은 이미 밝혀둔 바이다. 이러한 전제는 물론 〈永州八記〉창작이 전부 불교를 매개로 삼았다고 보는 것이 아님은 자명한 일이다. 유종원은 유학자이고 당시 정부의 고위 관료를 지낸 정치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의 작품 가운데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매개들이 그의 생각들에 작용하고 그것을 예술로 창조해낸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기본 전제로 하기로 하고 서술을 진행하기로 한다.

〈永州八記〉문장 속에 수용된 불교적 요소는 다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그 분야도 다양할 것이다. 본인의 불교에 대한 일천한 이해로 인해 본고에서는 우선 다음의 두 가지방면에서 다루기로 하며, 좀 더 심층적이고 다양한 고찰은

7) 謝漢強著, 〈柳宗元與佛教〉, 상계서, 11-24쪽 참조.

8) 〈永州八記〉는 〈始得西山宴遊記〉, 〈鉗鉞潭記〉, 〈鉗鉞潭西小丘記〉, 〈至小丘西小石潭記〉, 〈袁家渴記〉, 〈石渠記〉, 〈石澗記〉, 〈小石城山記〉를 말한다.

후일로 미루는 바이다. 여기서는 〈永州八記〉에 나타나는 경물관조와 이러한 경물 관조를 통한 감수 경험을 처리하는 서술방식 속에 보이는 불교수용과, 〈永州八記〉의 각 문장 제목에 보이듯이 생활주변의 小景에 대한 주목과 그것의 심미가치 발견에 반영된 불교수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경물관조와 경험의 서술

불교는 모든 존재를 인간의 인식을 중심으로 관찰하며, 인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세계의 관찰에서부터 출발하는 종교다. 구체적인 현실세계를 印度에서는 一切(sarvam) 즉,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말로 표현하며, 이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世界나 世間(loka)이라는 말과도 같은 개념이다.⁹⁾ 이러한 一切는 모두가 無常하고 괴롭고 無我인 것이다.¹⁰⁾ 일체가 무아요 무상하다면, 어떤 나가 있어 이렇게 알고 본다고 말하는가? 따라서 이러한 명제는 절대적인 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나를 찾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보았다.¹¹⁾ 모든 것은 無常하지만 無常한 속에 일정한 법칙이 常住하고 있어 각 존재에는 그런 법칙이 머물고 있다(法住). 따라서 모든 존재가 본래 법칙을 그의 성품으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모든

9) 동국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佛敎學概論》,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1) 51-53쪽 참조.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하자면, 부처님은 '一切는 十二處에 포섭되는 것이니, 곧 눈과 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 의지와 법이다.'라 하였는데, 十二處의 구성은 눈·귀·코·혀·몸·의지라는 여섯 개의 認識기관(六根)과 색·소리·냄새·맛·촉감·법이라는 여섯 개의 인식대상(六境)으로 되어있다고 하였다. 十二處說에서 불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다. 인식 주체가 되고 있는 여섯 개의 감각 즉 六根은 그대로 人間存在를 나타내고, 인식객체가 되고 있는 여섯 개의 대상 즉 六境은 그러한 인간의 自然環境에 해당되며, 주체적 인간의 특질을 '意志(manas)'로 파악하고, 客體적 대상의 특질을 '法(dharma)'으로 파악한다. 意志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自由와 能動적인 힘이 있는 것이며, 法은 어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必然性을 지닌 것이다. 이러한 뜻의 意志와 法이라는 개념으로 인간과 자연의 특질을 규정하고 있다.

10) 동국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佛敎學概論》: '一切無常, 一切苦, 一切無我. (一切의 속성에 대한 이 세 가지 命題를 불교에서는 三法印이라고 부른다. 法의 특성이라는 뜻이다)', 상계서, 57-64쪽 참조.

11) 상계서, 64쪽 참조.

존재는 그런 법성(法性)을 지닌 '法' 그것이라고 말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一切를 '諸法'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한다.¹²⁾ 이러한 일체중생은 眞如本性인 佛性을 다 가지고 있어서, 불(佛)이나 법(法)이나 승(僧)이나 평등하여 추호도 증감차별이 없다.¹³⁾ 佛性の 명칭은 불교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된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무상정각(無上正覺)을 성취한 뒤에 녹야원으로 다섯 비구를 찾아가 맨 처음 하신 말씀은 “나는 中道를 바르게 깨달았다”는 中道선언이다. 中道란 불생불멸중도(不生不滅中道)이며, 생과 멸을 따르지 않는 우주의 근본이치이고, 이는 또한 '불성(佛性)', '법성(法性)', '자성(自性)', '진여(眞如)', '법계(法界)', '마음(心)'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佛性 즉, 중도란 곧 마음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중도를 깨쳤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자리', '근본자성'을 바로 보았다는 말로서 이것을 견성(見性)이라 한다. 따라서 견성이란 근본 마음자리를 확연히 깨쳐, 즉 중도의 이치를 깨달아 부처가 되었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다.¹⁴⁾

여기서 부처님이 도를 깨쳤다는 것은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쳤다는 말이며, 중생이 변하여 부처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체 중생은 본래 진여본성,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무량아승지겁'전부터 成佛한 본래모습임 그것을 바로 알았다는 말이며, 이는 부처님 한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일체 중생, 일체 생명, 심지어는 구르는 돌과 서 있는 바위, 유정(有情), 무정(無情) 전체가 '무량아승지겁'전부터 다 성불했다는 그 소식인 것이다.¹⁵⁾ 세간의 모습은 언제나 시시각각으로 생멸하지만 그것은 겉보기일 뿐이고 실지 내용에 있어서는 우주 전체가 불멸이다. 이것이 모든 만법의 참모습이며 불교에서는 이를 제법(諸法)의 실상(實相)이라고 한다.¹⁶⁾

따라서 사람은 물론 동물도, 식물도, 광물도, 심지어 저 허공까지도 불생불

12) 상계서, 64-68쪽 참조.

13) 성철 스님, 《옛 거울을 부수고 오나라-禪門正路》: 「一切衆生이 悉有佛性하야 佛法僧에 無有差別이나라. 《대열반경》제인용」 (장경각, 2009), 40쪽 참조.

14) 상계서, 16쪽 참조.

15) 퇴옹성철,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장경각, 2008), 141쪽 참조.

16) 상계서, 88쪽 참조.

멸인 것이고, 또한 모든 처소 시방법계 전체가 모두 다 불생불멸인 것이다. 그러니 見性하게 되면 시방세계가 곧 정토이며 불국토인 것이고, 모든 존재가 전부 다 부처고, 모든 처소가 전부 다 정토인 것이다.¹⁷⁾

유종원의 산수유람은 산수경물이 지니고 있는 佛性 즉 제법의 실상을 보는 것으로 止觀¹⁸⁾의 방법을 통해 경물을 관조한다. 천태종에서는 '一念三千'¹⁹⁾과 '三諦圓融'²⁰⁾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종교수행을 통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止觀 즉 조용히 心想을 정지하고 無念에 머물러 妄想을 멈추고 참 지혜를 내어 모든 존재의 참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다. <巽公

17) 상계서, 142쪽 참조.

18) 동국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佛敎學概論》: 「止觀이란 觀心(마음을 관)하는 것이다. 止觀의 止는 모든 心想을 정지하고 無念에 머무르는 것을 말하고, 觀은 妄想의 산란한 마음을 멈추고 참지혜가 나타나서 모든 존재의 참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다. 번역하면, 止는 定이고, 觀은 慧라고 한다. 또는 寂과 照라고도 해석한다. 止와 觀은 둘로 나누지만 실제로는 필경에 하나이어야 한다. 이 止와 觀에 의하여 모든 존재가 삼제원융하게 되는 진리로 나타나며, 또 일념삼천이라는 세계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止觀의 실천방법은 천태종이 다른 종파와 달리 이론과 실천을 동시에 중요시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상계서, 172쪽 참조.

19) 동국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佛敎學概論》: 「一念三千의 一念은 一瞬間 혹은 一刹那의 한마음을 의미한다. 그 一念 가운데 三千의 세계가 갖춰진다는 天台의 근본적인 세계이론이다. 일념삼천이란 삼천세계가 한 순간의 우리의 마음에 갖춰 있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순간의 一念 가운데 三千世界가 갖춰 있다는 뜻이다. 이 意味에서 우리는 무한한 可能性을 가지고 있으며 自由意志를 가진 存在이다. 우리는 이처럼 무한한 自由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佛界에도 地獄세계에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여기서 佛陀의 방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천태의 체계적인 실천방법인 止觀思想이 나오는 것이다. 상계서, 169-171쪽 참조.

20) 동국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佛敎學概論》: 「삼제원융(三諦圓融)이란 一心三觀사상을 말한다. 천태의 진리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천태 범화사상을 체제짓는 근거가 되고 있다. 삼제원융(三諦는 空諦 假諦 中諦임)이란 세 개의 진리를 空觀으로 自覺한다는 뜻이다. 한편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을 空이라 否定하고(空諦) 또 한편으로는 모든 存在하는 것을 假라고 긍정하는(假諦), 이 두 개의 입장인 부정과 긍정 가운데 中諦가 자리잡고 있다. 다시 말하면 空諦 가운데 가제와 중제를 포함하고, 假諦 가운데 공제와 중제를 포함하고, 中諦 가운데 공제와 가제를 포함하고 있는, 세 가지의 존재의 자각이 혼연하여 一體가 된 곳에 삼제원융의 境地가 전개되는 것이다. 인생의 깨달음의 궁극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一境에 三諦가 갖춰진 상태, 이것을 卽空·卽假·卽中의 三諦라고 한다. 이 三諦의 眞理를 觀하는 것이 三觀이 되고, 원융삼제를 觀하는 것을 삼제원융관이라고 한다. 一心三觀이란 인간의 한 마음이 그대로 원융삼제라고 관하는 것이다.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 諸法實相의 진리라고 보는 근거는 여기에 있는 것이며, 천태사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실천의 요제이다.」 상계서, 171-172쪽 참조.

院五咏)시에서 '照空'이라 한 照는 觀照, 照見의 뜻이며, 불교의 '一切法皆空'의 관념에서 볼때, 세간만물에 대해 '볼看' 수 없으며, 다만 '마음 心'으로 觀照할 수 만 있는 것이다²¹⁾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永州八記〉의 첫 편인 〈始得西山宴遊記〉를 통해 우리는 유종원의 산수 유람에 대한 태도가 전후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한 차이는 경물에 대한 관조를 통해 서산이 지니는 탁 트이고 광활한 아름답고 즐거운 경물 조망권, 이를 통하여 즐거움이 충만한 불국토를 체험하는 듯한 희열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견성을 통해 서산의 특이함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최인이 되어 이곳에 거주한 이래로 나는 늘 두렵고 불안하였다. 틈이 나면 느긋하게 다니면서 여기저기를 유람하였다. 날마다 동행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고 깊은 숲에 들어갔으며, 굽이진 계곡 골짜기, 그리고 깊은 샘이나 괴석이 있는 곳이면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어느 한곳에 이르면 풀을 헤치고 앉아 술병을 기울여 취하였으며, 취하면 서로 베고 누웠고, 누우면 꿈을 꾸었다. 그리고 마음이 가는 곳이면 꿈도 따라갔다. 깨어나면 일어나고 일어나면 돌아왔다. 그리고는 특이한 모습을 한 이곳의 산수는 모두 유람했다고 생각하며 서산이 기괴하고 특별한 줄은 미처 몰랐다.²²⁾

최인의 심정으로 두렵고 불안한 상태로 발길 닿는 대로 高山、深林、廻谿、幽泉怪石을 쫓아 멀리까지 유람을 다녔지만, 지금 서산의 정상에 올라서는 편안히 앉아서 사방의 정경을 관조한다. 견성한 사람의 관조이기에 서산이 지니는 특이한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명산대천은 아니지만 서산도 일체 만물이 평등하게 지니고 있는 佛性을 똑 같이 지녔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굳이 멀리 있는 명산대천을 찾아가지 않고 서산에서도 볼 수 있는 실상의 발견이며 심미와 가치의 발견인 것이다. 여기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중생의 진여 불성은 모두에게 있으며 증감차별 없이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논하기로 한다. 이렇게 얻어진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21) 王國安著, 〈讀〈巽公院五咏〉兼論柳宗元的佛教信仰〉, 상계서, 18쪽 참조.

22) 유종원지음, 오수형·이석형·홍승직 옮김, 《유종원집2》, (소명출판, 2009), 479-480쪽 번역문 인용.

서로 붙잡고 끌어가며 올라 다리 뻗고 앉아 멀리 내다보니, 여러 주(州)의 땅이 모두 앉은 자리 아래에 있었다. 높고 낮은 지세는 우뚝했다가는 또 우뚝한 것이 마치 개밧둑이나 웅덩이와도 같았으며, 천리가 마치 한 자나 한 치인 양 축소되어 겹겹이 쌓여서는 어느 것도 숨지 못하였다. 푸른 산과 흰 강은 서로 꼬여 하늘 끝에 접하였는데 사방이 하나같았다. 그 후에야 이산이 홀로 우뚝 서 작은 언덕들과는 부류가 다르며, 유유히 천지의 호기와 하나가 되어 그 끝을 알 수 없으며 득의양양 조물주와 함께하여 그 끝간데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²³⁾

서산에서 볼 수 있는 경치의 아름다움은 다른 명산에서 볼 수 있는 경치의 아름다움과 전혀 차이가 없다. 또한 천지의 호기와 하나 되어 득의양양 조물주와 노닐 수 있는 즐거움도 마찬가지로 누릴 수 있다.

경물에 대한 관조는 불교의 수행방법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교에서 객관세계는 주로 '名' '色'²⁴⁾으로 표현하며 '名' '色'이 존재하는 이유는 '불성을 보는 일 觀心'이 '객관사물을 보는 일 觀境'을 통해야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觀境'의 최종 목적은 '觀心'을 위한 것이다.²⁵⁾ 유종원의 경물에 대한 관조는 그를 통한 객관만물 즉 제법²⁶⁾의 실상(心 또는 佛性)을 보는 것이다. 이택후는 대자연 자체는 무의식, 무목적, 무사유, 무계획적인 것이며, 다시 말해 '무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무심' 가운데, 이러한 무목적성 가운데, 도리어 일체를 그렇게 만드는 '大心' 大目的性, 즉 바로 神(佛性-역자주)을 엿볼 수 있게 된다고 했다.²⁷⁾ 관조를 통해 발견한 것은 '서산의 우뚝함'이며, 천

23) 유종원지음, 오수형·이석형·홍승직 옮김, 《유종원집2》: 「攀援而登, 箕踞而遨, 則凡數州之土壤, 皆在衽席之下. 其高下之勢, 峴然窪然, 若垤若穴, 尺寸千里. 攢蹙累積, 莫得遯隱. 縈青繚白, 外與天際, 四望如一. 然後知是山之特立, 不與培塿爲類, 悠悠乎與顛氣俱, 而莫得其涯. 洋洋乎與造物者遊, 而不知其所窮.」(소명출판, 2009).

24) 동국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佛敎學概論》: 「識을 연하여 '名色'이 일어나는데, 色은 물질적인 것을 가리키고 名은 非物質적인 것을 가리킨다. 五蘊說로 설명하면 色蘊은 색에, 受·想·行·識蘊은 名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名色の 발생은 물질적인 것(形色)과 비물질적인 것이 결합된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다.」 상계서, 71쪽 참조.

25) 張碧波著, 〈佛學與中國文學家〉, 《中國文學史論》, (黑龍江教育出版社, 1993), 290쪽 참조.

26) 제법은 불교에서 세상만물을 지칭하는 것이며, 제법은 모두 평등하게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지의 호기와 하나가 되는 점이다. 또한 득의양양 조물주와 무궁한 우주를 자유롭게 노닐 수 있는 것이다. 서산이 지니는 이러한 높고 우뚝함, 광활함과 자유로움은 서산의 심미이자 또한 이를 관조한 작가의 정신세계이며, 또한 인격미인 것이다. 그러한 서산을 발견하고 향유한 것이 이전의 산수 유람과의 차이이며, 그 방법은 불교수행의 방법을 수용하고 그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이다.

불교에서 마음은 佛性 또는 本性的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서산의 유람 후에 「마음은 집중되고 육체는 분해되어 만물과 하나가 되었다. (心凝形釋, 與萬化冥合)」는 佛性을 확철히 깨침(心凝)과 온갖 번뇌 망상이 끊어진 상태(形釋)를 완성한 경지의 표현과 유사하다. 종교적으로 볼 때 이는 해탈이며 득도한 것이며, 산수유람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의 번뇌를 씻고 맑은 정신 상태로 깨달은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해탈의 경지에 들었기 때문에 유종원은 「이전의 유람은 유람도 아니었으며, 이제야 진정한 유람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然後知吾嚮之未始遊, 遊於是乎始)」고 한 것이다. 이로써 이전의 유람은 무명상태의 유람이고, 지금 부터는 깨달은 자 해탈한 자의 유람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로써 이후에 이어지는 유람은 모두 경물에 대한 세심한 관조를 통한 경물 묘사가 서술의 주를 이룬다. 이들 경물묘사는 견성한 작가의 관조를 통해 주관적 묘사를 배제시킨 경물 자체의 실상, 불성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의 아름다움을 예술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경물에 대한 묘사는 색채미, 정태미, 동태미, 촉감 등 다양하고도 세심하게 나타난다.

‘서산’의 명칭에서도 우리는 불교적 상징인 서방정토 내지 극락세계를 암시 받을 수 있다. 유종원의 ‘서방정토설’에 대한 믿음의 암묵적 반영으로 보인다. 〈永州龍興寺修淨土院記〉에서는 서방정토신앙을 피안에 이르게 해주는 ‘배나 뗏목舟筏’으로 여겼으며, 「불도를 굳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에 속임이 없다. (其於佛道無退轉者, 其言無所欺)」²⁷⁾라고 하여, 서방정토에 대한 깊은

27) 張碧波著, 상계서, 291쪽 참조. 張碧波는 이택후의 말을 인용하고 있으며, 이를 재인용.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²⁹⁾

유종원이 남산이나 동산이 아닌 서산의 특이함을 발견한 것을 〈永州八記〉의 새로운 산수유람 기록의 출발로 삼은 점은 우연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 실제로 서산을 유람하면서 해탈의 경지를 체험하고 있으며, 서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강을 건너갔으며(過湘江), 이 때 '舟筏'을 이용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淨土는 글자 그대로 '부정잡예(不淨雜穢)'가 사라진 청정한 부처님의 국토를 가리키고 있다. 즐거움이 충만한 땅이라고 해서 극락세계(極樂世界)라고도 불리 운다. 서방정토 즉 서방극락세계는 땅이나 수목 등이 모두 황금이나 칠보로 되었으며, 마음만 먹으면 되지 않는 것이 없는,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수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설명되어 지고 있다. 정토사상은 바로 이러한 정토에 '往生'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往生'이라는 개념이 다시 정토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데 글자 그대로 그것은 '가서 태어난다'는 뜻이다. '가서 태어난다'는 말은 '간다'는 말과 '난다'는 말이 복합된 것으로, '간다'는 것은 예토에서 他方淨土에로 가기 때문이고, '난다'는 것은 정토에서 새로운 출생을 받기 때문이다.³⁰⁾ 유종원의 서산은 이러한 서방정토 사상의 암묵적 반영으로 보이며, 번뇌 망상을 없애고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새롭게 태어난 작가는 새로운 유람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始得' 두 글자는 이러한 작가의 불교수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나머지 기문에서도 서쪽과 관련한 언급이 거의 매 편마다 등장하는데 이는 작가의 특별한 종교적 관심사를 은연중에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고무담은 서산 서쪽에 있는데……. (鈇鋤潭在山西……) 〈鈇鋤潭記〉」, 「서산을 발견한 지 여드레 만에 산의 입구를 따라 서북쪽으로 이백 걸음을 간 곳에서 또 고무담을 발견하였다. 고무담에서 서쪽으로 스물다섯 걸음을 가니…… (得西山後八日, 尋山口西北道二百步, 又得鈇鋤潭. 潭西二十五步……) 〈鈇鋤潭西小丘記〉」, 「소구 서쪽으로 백 이십보를 가니……. (從小丘

28) 유종원지음, 오수형·이석형·홍승직 옮김, 《유종원집2》 (소명출판, 2009), 471-472쪽 참조, 번역문 인용함.

29) 王國安著, 〈讀巽公院五咏〉兼論柳宗元的佛教信仰, 상계서, 20쪽 참조.

30) 동국대학교 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佛敎學概論》, 상계서, 185-186쪽 참조.

西行百二十步……)〈至小丘西小石潭記〉, 「염계를 따라 서남쪽으로 십 리 물길 중에 불만한 산수가 다섯 군데 있는데, 고무담 만한 곳은 없다. 염계 입구에서 서쪽으로…… (由冉溪西南水行十里, 山水之可取者五, 莫若鈞鉞潭. 由溪口而西……〈袁家渴記〉, 「원가갈에서 서남쪽으로 가다가, …… 다시 꺾여 서쪽으로 흐르다가……. (自渴西南行, ……又折西行)〈石渠記〉, 「바위 도랑 석거를 정리하는 일을 마치고, 돌다리를 건너 서북쪽으로……. (石渠之事既窮, 上由橋西北)〈石澗記〉), 「서산으로 가는 길 입구에서 곧바로 북쪽으로 황모령을 넘어 내려가면 길이 둘 있다. 하나는 서쪽으로 났는데……. (自西山道口徑北, 踰黃茅嶺而下, 有二道: 其一西出)〈小石城山記〉」등, 서쪽 또는 서남쪽 서북쪽의 방위가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小景에 대한 주목과 ‘奇’‘特’심미발견

〈始得西山宴遊記〉를 계기로 시작되는 〈永州八記〉의 유기문 연작은 이어지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대상이 모두 자신이 생활하는 주변의 小景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심미발견으로 나타난다. 서산의 서쪽으로 백 걸음 간곳에 흐르는 작은 시내 鈞鉞潭, 고무담 서쪽의 小丘, 소구 서쪽의 小石潭, 작은 개울 앞은 모래섬 등이 이리저리 굽이굽이 섞여 있는 袁家渴, 바위로 된 작은 도랑 石渠, 바위하나로 이루어진 작은 바위계곡 石澗, 돌무더기 작은 성 같은 小石城山 모두가 작지만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경물들이다.

이러한 小景에 대한 심미 발견에는 크게 두 가지 영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영주사람이 찾지 않는 곳, 버려진 것, 아무도 사지 않는 땅 등등 사회현실에서의 가치로는 볼품없는 경물들이고, 규모도 작고 마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심미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은 유종원이라는 원대한 포부와 이상을 지닌 능력 있는 젊은 선비의 정치적 실의와 꺾적생활이라는 작가 자신과의 동병상련에서 찾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불교의 평등사상 「일체중생이 진여본성인 불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부처나 법이나 승이나 평등하여 추호도 증감차별이 없다. (一切衆生, 悉有佛性, 佛法僧無有差別) 『대열

반경』」³¹⁾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나아가 신분의 귀천에 상관없이 그 수행행위의 정도에 따라 부처가 될 수 있다³²⁾든지,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구도의 길에 통달한 사람이면 누구나 스승이 될 수 있다³³⁾든지 모두가 부처가 되는데 평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종원은 이전의 명산대천에 대한 유람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생활주변의 小景인 자연경물에서도 동등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小景의 이미지는 버려지고 주목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와 유사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닌 울분과 회재불우한 심정을 담아내기에 적절한 소재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小景이 지니는 '쑤(기이)'하고 '특(특이)'한 심미는 자신의 인격과 능력의 또 다른 동격인 셈이며, 이 때문에 이들 小景에 대한 심미의 발견과 서술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진다.³⁴⁾

경물에 대한 묘사에서도 불교의 불국토에 나타나는 진기하고 장엄한 경관묘사를 연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비록 小景이지만 불국토의 장엄한 경관과 차이가 없이 동등한 '쑤(기이)'하고 '특(특이)'한 아름다움을 지녔음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이 또한 불교의 영향을 엿볼 수 있는 점인데, 당시의 많은 선승과 승려들의 기이한 행각이 그들의 높은 종교적 경지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기이하고 특이할수록 승려의 높은 경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마조도일은 육조이후의 고승인데 고승에 대한 형용이 매우 특이하다. 용모

31) 성철 스님, 《옛 거울을 부수고 오나라-禪門正路》, 상계서, 40쪽 참조.

32) 법정 율김, 《숫타니파타》: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으시오, 불은 온갖 삶에서 일어나는 것. 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성인으로써 도심(道心)이 굳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행동을 삼가면 고위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샘터, 1991), 138쪽 참조.

33) 법정 율김, 《신역 화엄경》: 「입법계품: 선재동자가 53 선지식을 차례로 찾아가 그때마다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간절한 구도의 행각을 적은 것이다. 여기서 53선지식의 직업을 보면 뱃사공·부호·현자·이교도 동남·동녀 심지어 매춘부까지 들어 있다 진리를 탐구하고 구현하는 구도의 길에서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를 물을 것 없이 자신이 업으로 하고 있는 그 길에 통달한 사람이면 누구도 스승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마하가섭이나 사리불·목건련 같은 뛰어난 제자를 제쳐두고, 한낱 이름 없는 뱃사공이나 이교도나 바라문·창녀와 같은 사람들을 선지식으로 등장시켰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동국대학교 역경원, 1989), 8쪽 참조.

34) 황정희, 〈柳宗元山水記文中'奇'特形象的審美意義〉; 《柳宗元研究文集》, 상동, 374-381 참조.

가 매우 남달랐다고 한다. 긴 혀는 코끝 너머까지 닿았으며, 발바닥에는 수레 바퀴 모양의 문양이 두 개 있었고, 소의 걸음걸이와 호랑이 눈을 가졌으며 기개가 비범하였다.³⁵⁾ 이러한 기이하고 특이한 형용은 더욱 고승에 대한 신비성과 종교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마조도일은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든다는 화두로 인해 도를 깨쳤다는 범상치 않은 이야기도 그의 깨달음에 신비로움을 보탠다.³⁶⁾ 또 불국토에 대한 묘사도 매우 기이하고 진기하다. 《법화경》에 성불한 후의 세존이 거하는 국토의 모습을 「그 국토는 평정하고 파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되며 모든 언덕과 구렁창과 모래와 깨진 기와나 가시덤불과 똥오줌의 더러운 것이 없고, 보배꽃으로 땅을 덮어서 두루 맑고 깨끗하며, 그 나라의 인민은 다 보배로 축대를 쌓고 진기하고 묘한 누각에 있으리라.」³⁷⁾ 하여 매우 기이하고 특이한 묘사로 깨달음에 상응하는 불국토의 신비로움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묘사는 《법화경》에 매우 많이 나타난다.³⁸⁾ 유종원도 경물묘사에서 기이하고 특이함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줄져 〈柳宗元山水記文中‘奇’特形象的審美意義〉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어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그 중 하나를 들면 〈鈞鉞潭西小丘記〉의 경물 묘사를 들 수 있다.

멋진 나무가 흰칠하게 드러나고, 잘 뺀 대나무가 부각되고, 기이한 바위형상도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嘉木立，美竹露，奇石顯。由其中以望，則山之高，雲之浮，溪之流，鳥獸之遨遊，舉熙熙然廻巧獻技，以効茲丘之下.)

물론 유종원은 그의 문장 어디에서도 불교에 대한 직접 언급이나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유종원이 우연히 자신의 처지와 닮은꼴은 찾아내서 그 심미를 부여했다고 본다면 〈永州八記〉 전체에 관통하는 심미를 제

35) 杜松柏 지음, 朴浣植·孫大覺 옮김, 《선과 시(禪과 詩)》, (민족사, 2000), 100-102쪽 참조.

36) 상동.

37) 소림일랑 저, 이법화 역, 《법화삼부경》, (불기 2536년[1992]), 163쪽 참조. (授記品).

38) 소림일랑 저, 이법화 역, 《법화삼부경》 : '예를 들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후 보살도를 갖추어 성불하니 이름은 …… 불세존이라. 그 국토는 평정하되 파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되며 항금줄로 도로를 경계하고 묘한 꽃으로 땅을 덮어 두루 맑고 깨끗하게 함이니 보는 자는 기뻐하리라.' 등 매우 많다. 상계서, 165쪽 참조.

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된다. 유종원이 이토록 일관되게 〈永州八記〉에서 소재로 택하고 있는 小景이 지니는 세인으로 부터의 방치라는 자신과의 공통점, 그러나 小景에서도 명산대천과 똑같은 심미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신념, 이러한 신념은 불교의 만물이 모두 법성을 지니고 있으며, 평등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교의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종원은 이러한 신념을 자신의 예술적 서술을 통해 탁월한 문학의 옷을 입혀 독자 앞에 선보인 것이다.

IV. 나오는 말

이상에서 유종원의 〈永州八記〉에 나타난 불교의 수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유종원은 불교 수행에서 佛性 또는 마음(心)을 바로 보는 일 즉,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치는 일과 세간 일체 즉, 모든 만물은 佛性を 지녔다는 것을 산수 경물 속에서 발견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를 위해 止觀의 방법을 통한 경물 관조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경물이 지니는 섬세하고도 아름다운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서방정토 사상의 반영으로 보여지는 서산과 서쪽경물에 대한 애호가 두드러진 것도 불교의 극락왕생에 대한 믿음의 단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불국토의 장엄경치와 깨달음의 경지를 형용할 때 수반되는 기이하고 특이한 종교성과 신비성과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을 지녔다는 평등사상이 생활주변의 小景에 대한 미적발견을 가능케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영주팔기의 경물들이 지니는 공통적인 독특한 심미세계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동안 〈永州八記〉를 통한 불교의 수용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유종원의 예술적 처리기법에 그러한 사실이 교묘히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다시 말해 〈永州八記〉의 저술이 문학작품으로 쓰여진 것이지, 불교의 교의를 선양하기 위한 종교적 목적을 위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의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위낙 불교에 대한 공부에 일천해서 매우 피상적인 분석과 논리일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 이 방면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심화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야할 과제를 남기면서 본고를 마친다. 사계 제현의 아낌없는 질정을 구하는 바이다.

【參考文獻】

- 鹿琳, 〈〈永州八記〉-柳宗元精神世界與自然的完美融合〉, 《齊齊哈爾師範學院學報》, 1994. 6
- 楊鐵星, 〈柳宗元〈永州八記〉的美感性〉, 《河北學刊》1995. 2
- 王國安, 〈讀〈巽公院五咏〉兼論柳宗元的佛教信仰〉, 《柳宗元研究文集》, 廣西人民出版社, 2005.
- 謝漢強 著, 〈柳宗元與佛教〉, 《讀柳札記》, 中國文史出版社, 2003.
- 張碧波 著, 〈佛學與中國文學家〉, 《中國文學史論》, 黑龍江教育出版社, 1993.
- 孫昌武 陳瑋光 主編, 《柳宗元研究文集》, 廣西人民出版社, 2005.
- 유종원 지음, 오수형·이석형·홍승직 옮김, 《유종원집2》, 소명출판, 2009.
- 동국대 교양교재편찬위원회 편, 《佛敎學概論》,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1.
- 성철 스님,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禪門正路-》, 장경각, 2009.
- 퇴옹성철,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장경각, 2008.
- 법정 옮김, 《숫타니파타》, 샘터, 1991.
- 법정 옮김, 《신역 화엄경》, 동국대학교 역경원, 1989.
- 황정희, 〈柳宗元山水記文中‘奇’特形象的審美意義〉, 《柳宗元研究文集》, 廣西人民出版社, 2005.

【中文提要】

佛敎的研究和理解較深。他在永州的生活期間也有很多有關信仰佛敎的故事。因此容易聯想到同在此時寫作的永州八記也會受佛敎影響的可能性, 本柳宗元是深信佛敎的古文家, 尤在永州時期的詩文創作里可看到他

對篇爲了解決此疑問就探討永州八記里能看到的接受佛教現象。因本人對佛教理解有限，只從觀照景物和體驗的敘述以及對小景的注意和發現‘奇’‘特’審美等方面分析接受佛教現象。結果本人可以看到接受對佛教的‘一切衆生，悉有佛性，佛法僧無有差別’的平等思想和淨土信仰的往生思想以及悟道的奇特表現和莊嚴的佛國土景觀等。而把這些思想經過柳宗元的文學藝術處理終於誕生人口膾炙至今的名文章永州八記。

【主題語】

永州八記, 接受佛教, 一切悉有佛性, 觀心, 觀照, 西方淨土, 小景, 奇特審美

투고일: 2010. 5. 10 / 심사일: 2010. 5. 20~6. 8 / 게재확정일: 2010. 6. 12